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대처 및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유장학¹, 최희정^{2*}

¹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ang-Hak Yoo¹, Hee-Jung Choi^{2*}

¹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대처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자료는 M시와 S시의 2개 대학교, 2개 학과 간호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종교유무,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 학교성적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와 모두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beta=.45$), 적극적 대처($\beta=.30$), 종교($\beta=.15$), 학교성적($\beta=.11$), 소극적 대처($\beta=-.12$)가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총 설명력은 45.2%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대처, 종교, 학교성적이 고려된 교육적 프로그램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355 students in M city and I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9 to June 16, 2017 an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Sca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Coping Scal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 income, and school record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come, and school records. Cop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records. Professional self-concept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approach cop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edictor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pproach coping, religion, school records, and avoidant coping, which accounted for 45.2% of the varianc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enhancement program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that consider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ping, religion, and school records.

Key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본 논문은 목포가톨릭대학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ee-Jung Choi(Mokpo Catholic Univ.)

Tel: +82-61-280-5124 email: hjchoi@mcu.ac.kr

Received January 8, 2019

Revised February 14,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보건의료 임상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가장 많은 접촉시간을 가지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인력이다[1].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과 조건 속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인 간호사의 업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간호사의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이직은 이러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유지와 제공에 큰 장애요소라고 볼 수 있다[1,2].

최근 병원간호사회에서 실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7%였던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15.7%로 감소한 반면, 2011년 30.3%였던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3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3], 신규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또 다른 신규간호사로 채울 수 밖에 없는 의료서비스 환경의 특성상 신규간호사의 이직관리는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병원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4].

신규 간호사의 이직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발달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전문직업인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인 지각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5],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준 높은 간호 제공은 물론, 스스로 간호직에 대해 만족하고 전문직으로써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6].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대학생으로 교육받는 기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업 후 간호사로 일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는 간호전문직 사회화 모든 과정동안 계속적으로 발달하는데[7],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에 대한 미래의 행동결정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신규간호사에게는 임상실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소진 정도와 연관되어 이직 등 간호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예측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신규간호사의 이직관리를 위해 전문직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이를 조기에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6,8].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로는 임상수행능력이나 경력몰입에 미치는 호

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었고[8,9],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기관이나 실습 지도자, 실습동료, 성격이나 학업생활 등 주로 임상실습이나 대학생활 동안의 경험들을 영향요인으로 보고하여 왔다[10].

Geiger와 Davit[11]은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발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근무부서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경험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대인관계 관련 연구로 Kim[12]과 Ha와 Park[13], Sung[10]이 대인관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주로 보고되어 온 임상실습 관련 요인과 함께 대인관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Sung[10]의 연구만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한 Cowin[6]은 전문직 자아개념이 스트레스나 소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따라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임상실습 관련 요인, 대인관계와 함께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므로 취업하기 전인 대학교육과정 가운데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기에 확립하고,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이고, 종속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추출로 선정된 M시와 S시의 2개 대학교, 2개 학과 간호대학생들 중 만19세 이상의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을 읽고 쓰는데 지장이 없으며, 참여를 동의한 자로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제외하였다. 최초 설문에 응하였던 364명 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9명을 제외한 355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α 를 .05, 검정력(1- β)을 .95, 예측변수 10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72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전문직 자아개념

Arthur[14]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를 Seo[1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총 27문항이고, 부정 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08점까지이고, 4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2 대인관계 능력

Schlein, Guerney와 Stover[16]가 개발한 대인관계척도를 Park[17]가 보완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

총 7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과 Lee[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3 대처

Folkman과 Lazarus[19]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척도를 Park[20]이 수정·보완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많이 사용’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4 임상실습 만족도

Lee[21]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 대상과 의도에 맞게 문장을 수정, 보완하여 총 22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위 범주로는 실습 내용 6문항, 실습지도 3문항, 실습환경 6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M시와 S시 소재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설문 내용의 목적, 설문의 익명성,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시 연구참여 동의를 맨 앞에 첨부하였으며, 연구참여 동의서에

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대상자의 동의서와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개별화된 번호만을 부여하여 보관파일에 저장하였고, 신원을 알 수 있는 수거된 제반자료는 잠금장치를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Duncan test로 분석하였고, 전문직 자아개념,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친 효과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평균연령은 23.37(±0.14)세이었고, 여성이 89.9%, 3학년 55.5%, 4학년 44.5%, 종교는 53.2%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 이상인 경우가 85.4%, 학교성적은 보통이

56.4%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2.78(±0.02)점, 대인관계는 3.69(±0.03)점, 대처는 2.30(±0.02)점(적극적 대처 2.71±0.02, 소극적 대처 2.48±0.02), 임상실습만족도는 3.40(±0.0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ge		23.37±0.14
Gender	Male	36(10.1)
	Female	319(89.9)
Grade	3	197(55.5)
	4	158(44.5)
Religion	Have	189(53.2)
	None	166(46.8)
Income level	≥Middle class	303(85.4)
	Lower class	52(14.6)
School Records	Poor	86(24.2)
	Fair	200(56.4)
	Good	69(19.4)
Professional self-concept		2.78±0.02
Interpersonal relationship		3.69±0.03
Stress coping	Approach coping	2.71±0.02
	Avoidant coping	2.48±0.0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40±0.03

3.2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변수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t=2.57, p=.011$)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종교 유무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t=-4.34, p<.001$)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t=2.78, p=.006$)과 대인관계($t=3.31, p=.002$)의 차이가 나타났고, 학교성적에 따라 전문직 자

Table 2. Differ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Relationship, Stress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ariables	Categories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Gender	Male	75.08±0.51	.53	.599	66.73±0.45	2.57	.011	62.25±0.05	-2.7	.787	74.63±0.55	-.61	.542
	Female	74.22±1.83			62.94±1.79			62.67±1.25			75.72±2.29		
Grade	3	74.54±0.72	-1.04	.300	65.99±0.65	-.88	.382	62.15±0.67	-.34	.735	74.35±0.80	-.80	.424
	4	75.57±0.66			66.78±0.60			62.47±0.63			75.22±0.70		
Religion	None	72.77±0.68	-4.34	<.001	65.29±0.66	-1.22	.167	61.96±0.70	-.68	.499	74.250.87	-.85	.396
	Have	76.96±0.68			66.28±0.60			62.59±0.62			75.17±0.67		
Income	≥Middle class	75.56±0.52	2.78	.006	67.08±0.45	3.31	.002	62.41±0.49	.61	.545	75.08±0.57	1.53	.128
	Lower class	71.71±1.43			62.10±1.44			61.62±1.35			72.75±1.55		
School records	Poor	71.97±0.90 ^b	10.10	<.001	63.94±0.91 ^a	4.77	.009	61.40±0.93 ^b	4.94	.008	73.87±0.93	.50	.608
	Fair	75.08±0.64 ^b			67.04±0.55 ^b			61.67±0.62 ^a			74.86±0.71		
	Good	78.55±1.22 ^a			67.35±1.16 ^b			65.22±1.01 ^b			75.46±1.48		

^a Duncan test

아개념($F=10.10, p<.001$)과 대인관계($F=4.77, p=.009$), 대처($F=4.94, p=.008$)에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과 대인관계($r=.60, p<.001$)간에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전문직 자아개념 ($r=.31, p<.001$)과 대인관계($r=.43, p<.001$)와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대처($r=.30, p<.001$) 및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r=.46, p<.001$), 대인관계와 대처($r=.28, p<.001$) 및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r=.40, p<.001$),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처($r=.32, p<.001$) 및 하위영역인 적극적 대처($r=.35, p<.001$)간에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소극적 대처는 임상 실습만족도($r=.19, p<.001$)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Table 3).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Cop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Subjects

Variable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r(p)$.60(<.001)	-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p)$.31(<.001)	.43(<.001)	
Stress coping $r(p)$.30(<.001)	.28(<.001)	.32(<.001)
Approach coping $r(p)$.46(<.001)	.40(<.001)	.35(<.001)
Avoidant coping $r(p)$.05(.331)	.08(.135)	.19(<.001)

3.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요인과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 변수를 입력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처변수의 경우, 하위요인인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상호대립적이고, 이러한 성격이 Table3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구분하여 변수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인관

계($\beta=0.45, p<.001$), 적극적 대처($\beta=0.30, p<.001$), 종교($\beta=0.15, p<.001$), 학교성적($\beta=0.11, p=.005$), 소극적 대처($\beta=-0.12, p=.009$)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45.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다중회귀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55로 자기상관성이 없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이 대인 관계(1.48), 적극적 대처(1.63), 종교(1.03), 학교성적 (1.11), 소극적 대처(1.31)가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rofessional Self-concept

Variable	B	SE.	β	t	p	Adj-R ²
Interpersonal relationship	.50	.05	.45	10.39	<.001	.35
Approach coping	6.48	1.07	.30	6.07	<.001	.06
Religion	2.70	.74	.15	3.64	<.001	.02
School records	1.61	.57	.11	2.83	.005	.01
Avoidant coping	-2.51	.96	-.12	-2.61	.009	.01
$R^2=.46, \text{Adj. } R^2=.45, F=59.38, p<.001$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므로 취업하기 전인 대학교육과정 가운데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기에 확립하고,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간호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3.37세 이었고, 남성이 10.1%, 여성이 89.9%로 학교성적은 56.4%의 학생이 보통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일반적인 3, 4학년 간호대학생이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2.78점(± 0.02)으로 보통 이상이었는데, 이것은 Kim[12]의 3.14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고, Ha와 Park[13]의 2.75점이나 Baek 등[5]의 2.87점, Sung[10]의 2.83점과는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에 대해 Kim[12]은 임상현장에서 어려움을 직접체험하지 않은 경우, 미래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본 연구대상은 모두 3, 4학년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여 임상현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으므로 2.78점의 다소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과정 가운데 전문직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적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대인관계는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Duchscher[22]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상황가운데 대상자 및 의료진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Casey 등[23]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환자 및 보호자들, 타 분야 의료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자신의 전문직업 실무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im[12]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 및 간호행정가 등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고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과정 가운데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Ha와 Park[13]는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발달하며, 간호교육자와 간호전문가가 간호대학생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생들의 자아개념의 발달을 위해 지도자다운 사고와 행동을 통해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중 적극적인 대처는 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가지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인 대처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실무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업무소진이 유발되며 직장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6], Kim[24]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는 소극적인 대처인 회피중심 대처로 심화되고, 적극적인 대처인 문제중심 대처로 저하되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회피하려하기 보다 이를 직시하고 스스로 또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Lee[25]는 간호대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수동

적인 회피중심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심리적 안녕감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결국 적극적인 대처, 즉 문제중심 및 사회적 지지 추구중심의 대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실무에서 업무소진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문직업인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인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5]. 이러한 종교의 영향에 대해 Ha와 Park[13]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학교성적이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Sung[10]은 학점과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서 전공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Jeon[26]은 간호학과 입학동기와 학교성적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생이 가진 전공성취에 대한 동기와 전공지식에 대한 관심 등이 학교성적에 반영되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에서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고($F=10.10$, $p<.001$), 대처 방법이 많았으며($F=4.94$, $p=.008$), 학교성적이 보통 이상의 학생들에서 대인관계가 보다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4.77$, $p=.009$), 이러한 결과들도 전공동기부여가 높은 간호대학생들이 대인관계나 스트레스 상황 대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가지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전문직 자아개념, 대인관계, 대처와 모두 순상관관계를 나타내면서도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하는 요인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Sung[10]의 임상실습 만족이 임상수행 능력과 연관되며 간호직에 대한 정체성이라 볼 수 있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나 Park 등[27]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타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성격적, 기질적 측면이 반영된 방응양식인 대처가 영향

요인으로 포함되면서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는 임상실습 만족과 상호작용하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20], 임상실습만족도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모두 순상관관계를 가지는 결과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Lee와 Kim[28]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증가는 실습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실습만족도가 낮을수록 회피적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ee[8]는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역량이 높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자기 경력을 개발하는 경력몰입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 등이 동반되어야 역할 이행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역량이 뛰어나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더라도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이 아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중심 및 사회적 지지 추구중심의 적극적 대처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5,23].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적인 대처능력, 종교와 학교성적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아상을 확립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대학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만으로 조사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변수의 설명력이 45.2%로 보통수준이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경로분석 등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대인관계, 대처, 임상실습만족도와 모두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 적극적 대처, 종교,

학교성적, 소극적 대처 순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중심 및 사회적 지지 추구중심의 적극적 대처 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전공성취를 위한 동기과 전공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교에서 다양한 전문직 교육을 통해 형성하여 직장내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더욱 확고해지므로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 2)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역할모델을 갖고 인간관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과정 뿐 아니라 적성검사와 전문가 상담, 교수와 학생간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과 전공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3)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지지자원을 확보하므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후배간 멘토링, 다양한 취업처의 취업특강 및 설명회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Dyess, C. Parker. "Transition support for the newly licensed nurse: a programme that made a differenc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20, No.5, pp. 615-623, 2012.
DOI: <http://dx.doi.org/10.1111/j.1365-2834.2012.01330.x>
- [2] P. C. Beecroft, S. Santner, M. L. Lacy, L. Kunznan, F. Dorey. "New graduate nurses' perceptions of mentoring: six-year programme evalu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5, No.6, pp. 736-747,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6.03964.x>
- [3]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5 Annual report", Seoul: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6.
- [4] C. B. Jones, M. Gates. "The costs and benefits of nurse turnover: A business case for nurse retention",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Vol.12, No.3, 2008.
DOI: <http://dx.doi.org/10.3912/OJIN.Vol12No03Man04>
- [5] M. J. Baek, W. J. Kim, H. S. Ryu. "Influencing Factors

-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 3353-3365, 2013.
- [6] L. S. Cowin. “The effects of nurses’ job satisfaction on retention: An Australian perspectiv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32, No.5, pp. 283-291, 2002.
- [7] C. G. Kim, C. H. Noh. “Comparing Job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 Self-Concept of RN-BSN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5 No.2, pp. 250-266, 1999.
- [8] W. S. Lee. “A prediction model of role transition for graduated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5.
- [9] H. J. Dong.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the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sus University, 2016.
- [10]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1, pp. 18-24, 2012.
- [11] J. W. K. Geiger, J. S. Davit.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19, No.12, pp. 50-58, 1988.
- [12] K. S. Kim. “A Study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4, pp. 1991-2001, 2011.
- [13] N. S. Ha, H. M. Park. “The Impacts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5, No.2, pp. 47-56, 2009.
- [14] D. Arthur.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1990.
- [15]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7.
- [16] S. Schlein, B. Guemey,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17] S. A. Park. “The effect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by dance/movement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emyung University, 2005.
- [18] H. S. Jeong,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 2635-2647, 2012.
- [19]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20] J. Y.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5.
- [21] S. J. Lee. “The study for student nurs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0, No. 2, pp. 41-52, 1980.
- [22] J. E. Duchscher.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5, No.5, pp. 1103-13,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8.04898.x>
- [23] K. Casey, R. Fink, C. Jaynes, L. Campbell, P. Cook, V. Wilson. “Readiness for practice: the senior practicum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0, No.11, pp. 646-652, 2011.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110817-03>
- [24] E. A Kim. “Convergence study on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3, pp. 91-99, 2018.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8.9.3.091>
- [25] E. S. Lee. “Moderated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3, pp. 470-482, 2016.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470>
- [26] H. S. Jeon.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2, pp. 213-221, 2017.
- [27] B. J. Park, S. J. Park, H.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 220-227, 2016.
- [28] H. S. Lee, E.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 5-13, 2008.

유 장 학(Jang-Hak Yoo)

[정회원]



- 200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청소년, 스트레스

최 희 정(Hee-Jung Choi)

[정회원]



- 1983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2년 4월 ~ 현재 :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 청소년, 삶의 질